

◎ 교회목표 ◎

- 1. 찬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0년도 표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딤후1:1)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 천년이 되도록 한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다락방 찬양대회 5월 12일로 임박

다락방, 연합다락방, 가족팀의 신청 접수 5월 7일(주일) 마감

2000년 다락방 찬양대회가 5월 12일(금) 오후 7시 2층 예배실에서 열린다.

이를 위한 신청 접수는 5월 7일(주일)까지이며 신청양식은 사무국에 비치돼 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락방 또는 연합다락방, 가족팀 등이 참여하게 될 이번 다락방 찬양대회는 참가자들이 지정곡과 자유곡 등으로 찬양 실력을 겨루게 된다.

준비곡은 지정곡으로 찬송가 91장(슬픈 마음 있는 사람) 1절과 자유곡 1곡 등이다.

심사는 복장 및 태도와 표정(10점), 음정(20점), 박자(20점), 화음(30점), 기타(10점), 참가자 수(10점) 등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시상은 믿음상, 소망상, 사랑상 등에 해당하

는 3개 팀에 이종윤 목사님의 저서 및 기타 상품이 부상으로 주어지며 장려상과 예선을 통과하지 못한 참가자를 위한 참가상도 준비돼 있다.

시상식은 5월 14일(일) 찬양예배 시간 중에 갖게 되며 믿음상을 수상하는 다락방은 이날 모든 성도들 앞에서 발표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한편 다락방 찬양대회를 위해 준비위원 모임이 오늘 III부 예배 후 1층 예배실에서 열린다. 이 모임에서는 다락방찬양대회 진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게 되며 찬양위원, 각 찬양대 부대장 및 서기, 교구 간사 등의 참여가 요청된다.

5월 행사 게시판

일자	행사
7일	어린이 주일
7일	중등부 헌신예배
7일	특별제직회(후보선거에 관한 건)
12일	다락방찬양대회
14일	아버지 주일
14일	다락방찬양대회 시상식
28일	테마전도주일(없는 양 찾기)
28일	공동의회(집사·권사 선거)
28일	새가족환영회(찬양예배 시)
·매주 월요일	목회자신학세미나
·매주 일·화·수·목요일	서울성경대학 강좌
·매주 토요일	70인전도대 훈련

■ 성명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민족 분단으로 인한 아픔과 서러움을 안고 반세기를 살아왔다. 새 천년을 열고 있는 작금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조국통일의 과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분단과 악화는 막아져야 한다.

통일의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대결과 무력수단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접근과 상호이해 및 교류 협력의 중대를 시도하는 정부의 입장을 환영하는 바이다.

둘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기본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통일이나 평화라는 미명하에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정부가 지켜온 국가의 기본이자 인류사회의 보편적 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흔들리거나 훼손되는 타협이나 야합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북한 주민의 신앙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여러 가지 의제 중 북한 주민의 신앙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는 의제 선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인권의 기본이 되는 신앙의 자유가 북한 주민에게 명실상부하게 이루어지도록 한국교회는 50년이 넘도록 기도해 왔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소한 신앙의 자유, 전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국정을 책임지신 김대중 대통령과 각계 각층의 지도자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복음화 된 통일 조국의 도래를 위해 일천 이 백만 한국기독교인들은 기도한다.

2000년 4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순례자 칼럼

그리스도인의 가정

한 사회와 국가의 심장부는 가정이다. 그래서 가정문제를 소홀히 하고 사회가 바로 되기를 바라거나, 가정의 순결이 깨어진 상태에서 교회가 바로되기를 바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출발이다.

진화론자들이나 무신론적 과학자들은 가정을 동물적인 결합 이상으로 보지 않게 됨으로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켰고 인류학자들은 사회 집단의 목적 수행을 위한 도구로서의 가정을 말함으로 목적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가정을 창조 질서에서 이해하도록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아들이는 시온으로 설명한다. 그

그러므로 가정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가정에서 회복되어야 하며 다른 가정에까지 거룩한 영향을 발휘하는 가정이어야 할 것이다.

제자의 도 ①

그리스도의 제자

마가복음 8장 27절 - 9장 1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살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립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 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잃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25 - 33절과 병행구입니다.

우리 나라 기독교인의 수가 천 만명, 혹은 천 오백 만 명을 헤아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진실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은 있으나 사랑이 없고 평화를 찾으나 의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결국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 열심은 있으나 회생이 없는 사람, 쌓아 놓은 것은 오직 바벨탑뿐인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거짓과 위선으로 할 뿐입니다.

1.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마태복음 28장 19 - 20절은 그리스도의 대명령입니다. 위의 말씀에서 “제자를 삼으라”가 본동사이고 나머지는 조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것도 제자를 삼기 위해서이고 세례를 주는 것도 제자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제자가 되는 것은 물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제자’라는 명사가 264회가 나와 있고 동사형으로 나온 제자는 25회 나와 있습니다. 제자 중에는 바리새인의 제자도 있고 율법의 제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의 인격과 예수님 자체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처럼 “주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되고 순종하며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닮게 되며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다면 우리는 행동과 사고와 가치관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요 1:37).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주님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 후에 그들은 예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는 것은 예수님께 자신을 내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을 떠나야 하고 악을 떠나야 하며 무엇보다 자신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좇아야 합니다.

2.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져야 할 자세

(1)자기를 부인하라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말(눅 14:26)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우선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경우와 나를 사랑해야 할 경우가 대립이 될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2)자기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는 거절, 멸시, 천대, 억울함, 고난, 오해, 슬픔,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눅 14:27).

예수님의 제자는 억울하고 멸시받고 천대를 받으며 죽음에 이르게 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감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며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주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하며 회개하도록 하며 마침내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몇 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는 먼저 섬기는 종이 됩니다. 이것은 그가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아무 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삶을 삽니다. 그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전혀 의심하지 않고 단순한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참 제자는 고난으로 부름을 받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는 무엇보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3. 그리스도의 제자가 치려야 할 대가

그리스도의 제자는 지난 죄를 용서받고 현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며 미래에는 천국을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것을 위해 지불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망대를 세우는 자가 먼저 자기의 가진 것을 살펴보듯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의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자기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이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종운 목사

가정의 달을 열면서



아침에 축복하고 저녁에 감사하며

허상한(집사, 2교구)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부, 부모, 자식 등 소중한 사람들이 모여 사노라면 서로에 대한 배려뿐 아니라 때로 미워할 일도 생깁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생각이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입장이 있어 그들이 서로 일치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될 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부모라고 자기 주장만 펴면서 아이들의 생각은 접어두고 큰 소리로 야단만 치거나, 아이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요.

언제부터인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교구 지도 목사님께서 아침에 자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저녁에만 기도해 왔었는데 그때부터 하루를 시작하면서 축복하고,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작은 일 같은데 아이들은 그 시간을 너무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로서의 청지기의 역

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되어 본을 보임으로 우리 자녀들도 다니엘처럼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요즈음은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친구들도 이해하고자 하며 함께 더 많은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해 봅니다. 그러다보니 허물이 없어지고 마음의 벽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요즘은 참 지혜를 얻고자 잠언을 한 목소리로 읽고 있습니다. 부모의 길 어렵지만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저도 어머니처럼

이영희(집사, 2교구)

해마다 5월이 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갖가지 행사가 진행됩니다. 세상에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 어디 있으리라는 제겐 지금 아무도 살아 계시지 않으니 생전에 다하지 못했던 효를 더욱 생각나게 합니다.

세월이 흘러 갈수록 따뜻하셨던 어머니의 품을 찾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봄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찬송을 불러봅니다.

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복은 시어머님의 기도 덕택이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머니께선 항상 주무시기 전 오랜 시간 기도하셨고 그 모습을 우리 세 자녀가 잘 보고 배웠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도 아끼시고 사랑을 부어 주셨던 우리 아이들(윤걸, 선혜, 명걸)은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교육 방법을 동원하기보다 늘 겸손하시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며 회생하는 삶 자체가 본이 되셨습니다. 항상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씀이 매서운 회초리보다 더 힘있는 무기였습니다.

저도 어머니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괴롭히고 상처를 주고 의욕을 한꺼번에 꺾어버리는 패려한 혀를 쓰지 않고 소망을 주고 사랑으로 치료해 주는 대화를 하겠습니다. 한편으론 나이 많으신 분들을 어머니님으로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높고 연약하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존경심을 갖고 섬기려 합니다. 자식에 대한 지나친 사랑과 기대와 욕심을 버리고 눈물과 회생과 뼈아픈 고통을 통해 자식에게 모든 것 다 주시고 회생하신 부모님들을 섬기고 존경할 때 그리스도의 가정이 회복되고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편지였습니다

광야에서도 풍요함을 맛봅니다

정규호(미국 플로리다)

서울교회 청년부에서 있었던 많은 추억들이 떠오를 때면 교회 생각하며 또 함께 예수를 위해 미쳤던(?) 동역자들을 생각하며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는 복음(Spiritual)과 학문(Academical)이 잘 조화된 참 만족스러운 학교에서 학업에 정진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저 열린 마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고 있습니다. 충실히 실력을 쌓아가면 분명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얼마나 더 공부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에 대해 더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열려 있으니 어느 길이든

인도하소서.”

이제는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멈추고 새로운 길을 보여 주신다 해도 담대하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곳 교회에서 30여 명되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지식,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저들에게 '복음'과 '부활' 만을 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려 합니다. 더 바른 교회관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사랑하는 우리 유라! 정말 저희 가정에 힘과 꿈과 기쁨과 그리고 위로를 가져다주는 복된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17개월이 된 유라는 이제 제법 말도 알아 듣고 예쁜 것 귀여운 것만 골라서 합니다. 가끔 자기 의사 표현을 할 때 보면 몸만

아기지 어른처럼 생각하고 느끼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적응 잘하고 교회 유아부에선 “원장 선생님”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다른 아이들을 돌보기도 합니다.

미국 온 지 3년이 되어가네요.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친히 간섭하시는 손길들을 느낍니다. 특별히 물질에 대해 많은 훈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하나님을 이곳에서 절실하게 체험합니다. 매 학기, 정말 절묘하게 이런 저런 손길을 통해서 등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채우시는 것을 보며 이곳 미국 친구들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놀라며 말합니다.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최근 한국의 선거 결과며 정상회담 소식, 강원도 산불 소식 등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한 경직 목사님의 타계 소식에 고난과 부활의 예수님을 한번 더 생각했습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전도회 소개 - 마리아전도회(1946-1950년생)

20년은 더 젊어진 기분으로

이은옥(권사, 마리아전도회장)

새 천년의 꿈을 안고 50대인 우리들이 마치 20년은 젊어진 30대로 돌아간 양 마리아전도회로 출범하여 벌써 5월의 문턱에 들어 서고 있다.

작년까지 가장 젊은 전도회였던 "마리아전도회"란 명칭이 생소하게 느껴지던 날들이 지나고 이제 내가 마리아가 된 것같이 친숙함을 지니게 되었다. 올해부터 전 교구가 통합하여 시작된 전도회이니 만큼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책임감으로 늘 마음이 조급하기만 했던 지난 몇 달 간이었다.

그간의 일들을 돌아보며 회원들 모두에게 너무도 많은 감사와 고마움을 느낀다. 소리 없이 뒤에서 협조하고 격려해 주는 마리아 전도회원들이 있기에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흔들림없이 순조로운 진행을 해왔다.

모든 회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항상 교회 행사나 월례회 때마다 손과 발을 아끼지 않고 뛰는 봉사부, 성경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하고 알게 하려고 애쓰는 교육부, 농어촌 전도와 노방전도 등 전도에 앞장서고 각별히 신경쓰는 전도부, 회원들의 기쁜 일과 슬픈 일을 일일이 챙기는 예전부, 한 식구가 된 마리아 회원들의 고통을 나누고자 수고하는 구제부, 그리고 늘 기쁘고 즐거운 찬양으로 인도하는 찬양부, 무엇보다 교구의 회원들을 섬기고 챙기는 교구부장들의 수고가 있기에 마리아 전도회가 든든히 서가고 앞으로 굴러가고 있음을 감사드린다.

4월 초에는 우리 전도회원들이 새 예배당

건축현장을 방문했다. 그 다음 주에 정기 월례회가 연이어 있었고 목회자신학세미나가 진행 중이라 봉사의 손길이 많이 요구되는 때여서 얼마나 많은 회원이 새 예배당 건축 현장 방문 길에 동참할 수 있을지 걱정했었는데 의외로 많은 회원이 함께 했다.

예배당에서 기도회를 갖고 출발하여 현장에서 다시 기도회를 가진 후 현장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가파른 가계단을 붙잡고 올라가면서 다리가 흐들거렸지만 가슴은 설레임으로 가득했다. 아직 완성된 예배당은 아니었지만 사방이 뚫린 공간에서 건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아, 여기가 본당이구나!" 하며 여기쯤 또는 저기쯤 앉아서 예배드리는 광경을 꿈꿔 보았다. 완성되어 그 자리에서 예배드릴 그날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 올랐다.

위에 올라서서 보니 교회와 맞닿아 있는 공원에는 이제 막 피어오르는 꽃들과 파랗게 돌아나는 이파리들이 마치 우리 예배당 건축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듯했다.

지금은 예배 후 길거리에서 다소 어색하게 차를 마시며 교제를 나누고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차도 마실 수 있을 터이다. 또 갈 곳 없어 서성이던 아이들도 이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노라니 여기 저기에서 환한 웃음 소리가 들려 오는 듯했다. 잠시이지만 계속 즐거운 상상이 이어졌다.

처음 모이는 시간인 아침에 가졌던 피곤함

과 근심은 사라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만을 가득 안은 채 새 예배당을 뒤로 했다. 모든 전도회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중에서도 마리아전도회는 50대의 나이에도 30대처럼 활기차게 사랑과 열정을 더욱 쏟아 붓게 되기를 소망한다.

■ 동정 ■

- * 조은주 집사(할렐루야찬양대 오르가니스트)는 시온찬양대 오르가니스트로도 겸하여 봉사한다.
- * 강주해 목사(영락농아인교회, 1교구 전인화 권사 아들)은 20일(목) 장애인의 날에 올해의 장애극복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 * 이번 주 식사는 정하자 집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 유년부는 5월 1일(월)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현장방문을 한다.

■ 이사 ■

* 채덕희 권사, 양천구 신월동으로(☎ 2608-0286)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예배 시 새가족을 환영하는 순서를 갖습니다. 4월에 등록된 새가족은 인도자와 함께 예배 전 환영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초청된 새가족 *

김영남 노석주 이은진 정윤자 윤선향 백란희 이윤희 김경신 강재구 강상민 김승연 윤명희 조건행 이창규 김은숙 우원선 이운선 이재현 김태형 오교식 김은순 이경옥 김종열 이순임 박준삼 정은경 안성숙 차성태 김은혜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 제 17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

- 5월 1일 - 제 1교시 / 사도행전 연구(이종윤)
 - 제 2교시 / 지역 이기주의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과 교회의 사명(교양인)
- 5월 8일 - 제 1교시 / 사도행전 연구(이종윤)
 - 제 2교시 / 한국의 전통 문화와 교회 갱(김문환)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다락방찬양대회를 위해
2. 제 7학기 서울성경대학과 제 17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해
3. 새가족의 교회 생활 적응과 신앙 성숙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 일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 일 오후 5시
수 요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 도 회	오후 9시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외약도

